

한탄강댐 건설 내달말 결정

참여정부의 사회갈등 해결 본보기 첫 과제인 한탄강댐 건설 여부가 9월 말까지 결정된다.

정부, 환경단체, 지역 찬·반 주민 대표들로 이뤄진 한탄강댐 문제 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회의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콘도에서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조정소위는 당사자회의 해체일(9월1일)로부터 1개월 안팎 사이에 최종결정을 내리다는 것 등에 합의했다.

당사자회의는 또 조정소위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할 경우 당사자 대표들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건설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건설 철회를 결정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수물 예정 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김정수 기자